##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9〉

# 현답이 된 동문서답

**망월선원 조실 용성스님께 보낸 답서**

**近日鄙留壁上에 畵二猿二猪러니 人皆稱名畵라 望月大衆은 一次來玩이 如何오.**
**漢 岩**

**요사이 제 방 벽에 원숭이 두 마리와 돼지 두 마리를 그려 놓았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들 명화(名畵)라고 합니다. 그러니 망월선원의 대중들도 한 차례 와서 구경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한 암**

이 편지는 도봉산 망월선원(望月禪院) 조실로 있던 백용성(白龍城) 스님의 법거량 편지에 대하여 답한 것이다. 당시 백용성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 선원 조실로 있었는데, 전국 선원에 다음과 같은 법거량 편지를 보냈다.

"조주무자를 십종병(十種病)에 떨어지지 말고 한 구(句)를 일어 보시오(趙州無를 不落十種病하고 道將一句來하라)".

십종병이란 '무자화두 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을 뜻한다. 즉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 병통이 되는 열 가지로, ①무자화두를 '있다 없다'는 식으로 헤아리지 말라(不得作有無會). ②무자를 진무(眞無)의 무(無)라고 헤아리지 말라(不得作眞無之無卜度). ③무자에 무슨 대단한 도리가 있는 것으로

### 백용성 스님 법거량의 답신
### 원숭이와 돼지 비유로 법문

생각하지 말라(不得作道理會), ⑤눈과 눈썹을 깜박이는 곳에서 뿌리박지 말라(不得向揚眉瞬目處楕根) 등 열 가지이다.

그런데 '조주의 무(無)'에 대하여 이 열 가지에 저촉되지 말고[不落十種病] 한마디 해보라고 한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미순목 같은 것으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으나, 이것도 십종병에 들어가 있으므로 곤란하다. 상대방이 답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차단하고 묻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즉 도망갈 여지를 없애고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한 한암선사의 답은 매우 해학적이다. 망월선원에서 보내 온 법거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내 방 벽에 원숭이 두 마리와 돼지 두 마리를 그려 놓았는데, 다들 명화(名畵)라고들 하니 망월사 선원의 대중들도 한번 와서 감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鄙留壁上, 畵二猿二猪, 人皆稱名畵. 望月大衆, 一次來玩如何)"라고 하여 동문서답 식으로 답하고 있다.

원숭이 두 마리와 돼지 두 마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원숭이는 잔꾀, 사량 분별심, 알음알이를 뜻하고 돼지는 우치(愚癡), 무지(無知), 무명(無明)을 뜻한다. 즉 '한가하게 분별심을 내어서' 조주 무 '에 대하여 한마디 해 보라'는 등 부질없는 일일랑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치(愚癡)와 무명(돼지)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구나 하시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

**보월화상(寶月和尙)에게 보낸 답서**

**발징화상(發徵和尙)의 상서(祥瑞)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서 모두 합장한 채 귀의하거니와, 오늘 여기의 상서는 지혜 없는 이와는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만일 스님이 물어주지 않았던들 하마터면 묻힐 뻔했습니다.**
**상서(祥瑞), 상서여, 드물고, 드물고, 드문 일이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일념 중인 대중들이 오줌 눌 때에는 오줌 누고, 똥 눌 때에는 똥 누니라.**
**한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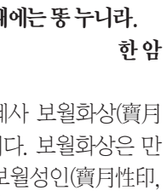
이 편지는 덕산 정혜사 보월화상(寶月和尙)에게 보낸 답서이다. 보월화상은 만공선사의 첫 제자인 보월성인(寶月性印, 1884-1924이다. 보월화상은 한암스님

### '상서(祥瑞)'를 묻는 보월에게 답
### "오줌 눌 때는 오줌 누고…"

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옛날 신라 때 발징화상은 건봉사 미타만일회(彌陀萬日會)를 개최하여, 아미타불을 염불한 결과 31인이 육신(肉身)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는데, 올 동안거엔 무슨 상서(祥瑞)가 있었습니까?(昔日 發徵和은 阿彌陀佛을 念하야 三十一人이 肉身騰空이어니와 今冬安居에 有何祥瑞오)"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상서(祥瑞)'라니 그 무슨 허튼 소리인고? 그저 대중들은 한 생각으로 오줌 눌 때에는 오줌을 누고, 똥을 눌 때에는 똥을 눈다"고 하여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두 편지는 1921년 건봉사 만일선원(당시 조실 한암선사)에서 간행한 〈한암선사법어〉에 수록되어 있다. 그 후 〈한암일발록(漢岩一鉢錄)〉에도 수록함.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호스피스는 다음생 준비 위한 봉사 누구의 죽음도 소외되선 안되요"

## 능행 스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장)

"죽음과 삶은 두 다리와 같습니다. 한 쪽 다리를 내밀면 삶이고 다른 한 쪽을 내밀면 죽음이 되는 거죠. 둘은 서로 공존하며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하나만 바라보고 집착하며 죽음을 외면합니다. 결국 해탈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은 다시 재생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하죠. 즉 죽음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수행하며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완화의료시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하 자재요양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는 능행 스님(자재요양병원장)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한다.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능행 스님의 20년 넘는 보살행은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 무연 자비의 실천이 개인 · 사회 살린다

자재요양병원의 개원식이 6월 15일로 다가왔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자재요양병원은 연면적 2,887.52㎡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08병상을 갖추었다. 1층 호스피스 병동, 2층 재활병동, 3층 승가병동 등이 있으며,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 등을 진료한다. 스님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1인실, 특실, 특수치료, 보약, 영양제 등의 비수가 부분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재병원은 치료를 통한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완화의료 병동 환자들을 위해서는 전인적이고 영적인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님은 2000년 충북 미원면에 호스피스 시설 정토마을을 건립해 말기암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불교계 호스피스 시설이 전무후무했기에 희망자는 많은데 수용인원은 15명뿐이었다. 몇 개월을 기다려 들어와야 하니 스님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다. 그래서 진료부터 임종까지 돌봐줄 수 있는 병원 건립을 발원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토마을 설립 당시인 1990년대 말만 해도 요양시설이 너무 부족했어요. 특히 불교계는 이런 시설이 드물었죠. 스님들은 부처님 곁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수밖에요. 이런 이유로 정토마을을 설립했지만 15명 밖에 수용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병원 건립을 원으로 세웠습니다."

정토마을 설립에서 자재요양병원 건립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스님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산을 넘으면 바다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험한 숲이 있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스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원력을 갖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고통을 분담하면 가족이 살고 사회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저희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보살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병간호를 하던 거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사업도 망했죠. 당시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스물네살의 교사였는데 월급은 차압을 당해서 오갈 데가

### '죽음' 화두… 호스피스 활동 시작
### 1988년 불교봉사단체 자비회 설립
### 1992년부터 말기암환자 돌보기 봉사
### 2000년 충북 미원면에 '정토마을' 세워

### 올 6월 15일 자재요양병원 개원 예정
### 완화의료 목적… 승가병동 등 총 108병상
### 1만5천 후원자 및 봉사자와 원력 불사
### 20년 돌봄 수행의 결실

없었어요. 보살님이 정토마을에 오면서 딸에게는 파산신청을 권유하며 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어요. 군대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 했는데 이렇게 집안 문제가 해결되자 삶의 희망을 얻었다고 해요. 보살님은 6개월 후에 정토마을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환자 한 분을 거뒀는데 가족이 희망을 찾은 셈이 됐죠."

상대가 누구이든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떠안아 주는 것이 복지의 할 일이라고 말하는 스님. 스님은 이를 무연자비의 실천이라고 표현한다. 병자 한 명을 구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에 안정을 얻게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도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한다.

### 한 손으로 목탁 치며 기도해준 도반

스님이 2003년부터 병원건립을 계획해 2005년 울산에 부지를 갖추고 완공까지 총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병원 건축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모연을 통해 병원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래서 이 일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일이라고 전한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1만 5천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분들께 큰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정토마을에 10년 동안 함께 했던 도반 성오 스님이에요. 스님은 반신불수의 몸으로 기도를 하며 안을 지켰고 저는 탁발을 하러 다녔죠. 개원을 앞둔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성오 스님입니다."

성오 스님은 2001년, 동안거 중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정토 마을로 들어왔다. 능행 스님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죽을 쑤어 스님의 코로 호스를 연결해 영양을 공급해 주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성오 스님이 어느날 눈을 떴고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님은 오른쪽 전신과 언어기능이 마비되었고 문자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니 그간 외웠던 경전도 다 잊어버린 상태. 성오 스님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글씨를 익혀 나갔으며 반야심경과 천수경도 새롭게 외우기 시작했다. 능행 스님은 그 즈음 병원 건립을 발원하고 탁발을 하러 다녀 기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성오 스님은 자신이 기도를 하겠다며 자처했다. 그때부터 정토마을 5평 남짓한 법당에서 스님은 왼손으로 목탁을 치며 기도를 시작했다. 기어서 가거나 혹은 간호사의 등에 업혀서 법당까지 가야 했지만 성오 스님은 하루 세 번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천일의 기도가 이어졌다.

"자신의 육체기능(특히 심장기능)을 20% 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스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스님이 안을 지켜주셨기에 제가 밖을 돌며 탁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스님의 천일기도가 끝나자 울산의 자재요양병원 부지가 확보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쓴 책이 많이 팔려서 인세를 받아 그곳에 교육시설 하나를 지을 수 있었죠. 스님께서는 병원이 절반 정도 완

치료를 통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재요양병원' 전경

한손으로 기도를 했던 故 성오 스님과 함께

2005년 정토마을 식구들과 기념촬영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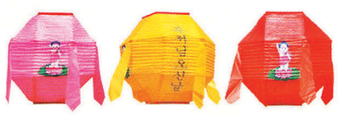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